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 K관광 '르네상스' 방한객 몰려온다

1~3월 475만 명 입국 분기 최대  
지난달에만 206만 몰려 신기록  
BTS공연·K컬처 열풍 확산 덕  
크루즈 관광 52.9% '깜짝 성장'  
카드소비액 23%↑ 내수 큰 힘

올해 1분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약 476만 명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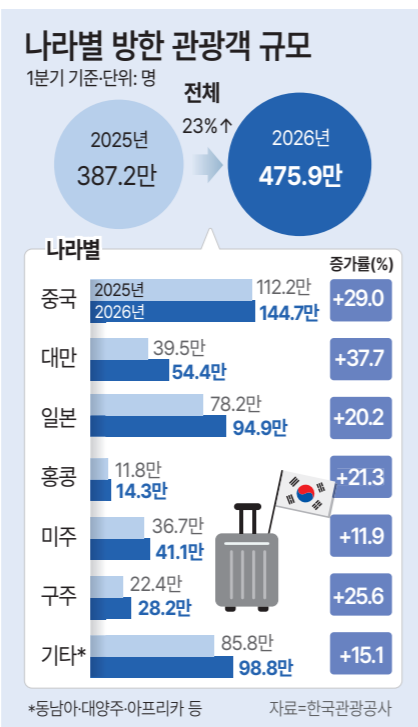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분기 관광객 475만9471명이 방문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3월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동기(387만247명) 대비 23% 증가했으며 특히 3월에는 관광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중국 관광객이 지난해(112만2169명)보다 29% 증가한 144만7870명을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가율 부문에서 대만 관광객이 39만5466명에서 54만4503명으로 37.7% 증가했고 일본(+20.2%)과 홍콩(+21.3%)도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 유럽 등 거리가 먼 외국인 관광객도 69만4136명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59만2876명) 대비 17.1% 올랐다. 동남아, 대서양, 아프리카 등에서 온 관광객도 85만8647명에서 98만8224명으로 15.1% 늘었다.

크루즈 관광 시장의 성장이 돋보였다. 제주·부산·인천 등 주요 기항지로 입항한 크루즈선은 총 338척(항차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9% 급증했다. 문체부는 크루즈 관광 시장의 성장을 정부가 추진해 온 기항지 관광 콘텐츠 개발과 입항 편의 증진 정책의 성과로 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61척 기항한 부산이 올해 1분기 178척을 마크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191.7%)을 보였다. 인천(+172.2%), 여수(+25%)가 뒤를 이었으며 제주는 134척에서 101척으로 24.6% 감소했다.

한국관광통계와 외래관광객조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데이터에 따르면 방한객



관광의 활동과 소비 패턴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올해 1분기 지방공향을 통해 입국한 관광객은 49.7%나 늘었다. 수도권 공향은 같은 기간 18.6% 증가했다.

방한 외국인의 지역 방문율(34.5%)도 전년 대비 3.2%p 올랐고 카드 소비액도 3조212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2조6113억 원) 대비 23% 오르며 관광이 내수 경제를 살리는 핵심 산업을 거듭나고 있다고 문체부는 덧붙였다.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1.1점 오른 90.8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고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K컬처의 매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목적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현재 국제유가유류할증료 상승으로 인한 항공료 상승과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해외여행 심리 위축 등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한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험 요인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3월 홍콩, 중국 선전, 칭다오와 4월 오사카, 도쿄에서 케이 관광 로드쇼를 열어 핵심시장을 공략했다. 30일 후쿠오카에서 다시 한번 열린다.

이영훈 기자 yhle@skypedaily.com

# 동시다발 종전 시그널... 유가 '뚝' 주가 '쑥'

트럼프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美·이란 종전 협상 타결 낙관적

브렌트·WTI 원유 100弗 아래로 전쟁 공포 턴 코스피 연일 상승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고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내 생각엔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라며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2차 종전 협상 개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란 또한 협상에 긍정적이다. 에스마일 바카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2일 이란 대표단이 돌아온 후에도 파키스탄을 통한 미국과 메시지 교환이 여러 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을 포함하는 파키스탄 대표단은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과 이란 협상의 중재역을 맡은 파키스탄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휴전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스라엘이 휴전 발표 이후에도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며 중동 긴장도가 높아졌으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까지 성사되면 종전 합의에도 한 발짝 나가게 된다.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55.58p 오른 7022.95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376.93p 오른 2만 4016.02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 역시 종전 발표가 있었던 7일 5495.78에서 16일 장 시작 기준 6149.49로 뛰었으며 이후에도 소폭 상승에 6200 근처에 형성됐다.

국제유가를 살펴보면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7일 배럴당 109.27달러에서 16일 기준 95.21달러로 하락했다.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선물 가격은 7일 배럴당 112.95달러에서 16일 기준 91.62달러로 떨어졌다.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던 두바이유 가격 역시 7일 배럴당 119.05달러에서 100달러 근처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이란과 미국이 서로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 양측이 아직도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pedaily.com



세월호 12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해경 여사가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역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도사에서 "국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 외국인 3월 54조 '묻지마 팔자'

3월 한 달간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채권 등 총 54조 원이 넘는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은 3개월 연속 순매도세가 이어졌고, 채권 역시 대규모 만기 상환의 영향으로 순회수로 전환되며 보유 잔액이 크게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16일 공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43조5050억 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10조9160억 원을 순회

수했다. 총 54조421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올 초부터 시작된 외국인의 주식시장 '엑소더스' 기류도 3개월째 지속되는 양상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KOSPI)에서 43조8880억 원이 빠져나간 것과 다르게 코스닥시장에서는 3840억 원 규모 순매수가 유입된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주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가 두드러졌다. 유럽이 26.4조 원 매도하고 상장채권 10조9160억 원을 순회

주식 3개월 연속 순매도 만기상환 채권 11조 회수

(9.8조 원)와 아시아(5.6조 원)가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영국의 순매도가 16.3조 원으로 압도적이었고, 미국 역시 9.5조 원을 팔아치웠다.

중동은 매수 우위를 점했다. 2000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 소폭 유입세를 보였는데, 특히 카타르(5000억 원)와 케이맨제도(3000억 원)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됐다.

3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 규모는 1576.2조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30.7% 수준이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 보유 잔액이 449.4조 원 급감했는데, 대규모 순매도와 주가 변동에 따른 평가액 감소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채권시장 역시 자금 이탈을 피하지 못했다. 외국인이 3월 중 5조4420억 원 규모의 상장채권을 순매수하며 투자 의지를 보였으나, 16조359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만기 상환 물량이 쏟아지면서 10조9160억 원의 순회수로 마무리됐다.

3월 말 기준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은 323.8조 원으로 상장 잔액의 11.5% 수준이었다. 전월 대비 13.5조 원 감소한 수치다.

박지혜 기자 parkjh@skypedaily.com

**“부(富)와 명성의 계보를 잇는 연결,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성공한 이들의 곁에는 항상 그들을 이끌어준 스승이 있었습니다.  
'부의 지도 명사 팬클럽'에서 당신만의 멘토를 만나고 그들의 성공 철학을 직접 흡수하십시오

단순한 팬덤을 넘어 성공의 파트너가 되는 길,  
지금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명사와의 특별한 만남이 시작됩니다